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4조4437억원 편성

미래교육 투자·재정 안정성에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AI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강화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상곤 전북교육청 예산과장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4,437억원 규모로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95억원(2.8%) 감소한 수준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투자와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생과 학교현장의 필수 수요를 반드시 지켜나기

전년비 1295억원 ↓... 역대 최대 규모 세출 구조조정

학생맞춤통합지원비·개별학생교육지원비 등 신설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더불어, 교육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사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7,659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4,06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1,170억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7억원과 통합교육재정안

정화기금 650억원을 활용했다.

다만, 학생 중심의 핵심사업 투자는 유지하거나 확대·편성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예산,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사업, 특수교육, 농어촌유학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 안전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미래교육 387억원, 학력신장 273억원, 책임교육 688억원, 교육협력 313억원, 학생안전 310억원 등이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개

별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비와 개별학생교육지원비가 신설됐다. 또, 공·사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월 2만 원씩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재정운용 여력이 크게 축소돼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축소 또는 조정됐으나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핵심사업은 유지하거나 증액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북교육,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2026학년도 수능 맞아

이남호 전 전북대 학교 총장이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여러분들은 수험장에 당당히 들어서는 것 자체로도 박수받을 일”이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하길 바란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학부들에게도 “그동안 수험생 못지않은 긴장감으로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절을 보냈기에 그 심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총장은 “대학수험능력시험일이면 모두가 하나돼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전북의 지력을 믿는다”면서 “그 힘으로 전북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내일,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시험장·반입금지 물품 확인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수험생은 1만7,937명으로 전년보다 896명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이날 수험표를 교부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으면 직계가족에 한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갖고 시험 당일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가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인 13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며, 오전 8시10분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8시30분 이후에는 시험장 입장이 불가하고, 8시40분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통제된다.

특히 도내 시험장 중에는 이름이 유사한 곳이 있으니 본인의 배치시험장을 확인한 후 이동 경로 및 방법을 미리 확인해 뒀다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 시계와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마스크는 휴대할 수 있다.

반면, 전자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전자담배나 보조배터리도 가져갈 수 없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임의의 장소에서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선택한 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 돼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시험 중 호흡기계통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수험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시험 당일 실수로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믿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은 지난 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지역아동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AI 융합시대 본질’ 주목 | 대구에서 ‘심리운동과 AI’ 주제 한독심리운동학회 추계학술대회

‘2025 한독심리운동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8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1호관 강당에서 열렸다.

10일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에 따르면 ‘심리운동과 AI’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해 심리운동학의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간 중심의 융합학문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독심리운동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한 지 10년 만에 열린 의미 있는 자리로, 지난 10년간 심리운동학이 학문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며 발전해 온 성과를 되돌아봤다.

학술대회는 1부 개회식과 기초강연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박재우 한독심리운동학회장(우석대 심리운동학과 주임교수)의 개회사와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환영사, 최철영 전국대학원생협의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오성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이 ‘인간의 인간적 기계 활용과 인간

능력 확장’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진행했다.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운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이 ‘실링의 능력지향 이론과 퍼지컬 AI’를, 박재우 한독심리운동학회장은 ‘심리운동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재현 우석대 객원교수가 ‘AI 학습을 체화된 지성으로 전환하는 심리운동의 역할’을, 김민석 대구사이버대 교수가 ‘퍼지컬 AI 시대의 심리운동’을, 김현실 대구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가 ‘신경 기반 AI 시대의 물질경험과 심리운동의 이해론적 전환’을 발표하며 심리운동과 AI 융합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3부에서는 심리운동학의 미래를 이끌 신진연구자 5인의 연구 성과도 함께 발표됐다.

김운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은 “AI 체계 전환은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학문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대학교가 추진하는 AI 기반 혁신교육과 맞닿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기반 교육혁신과 융합연구를 통해 인간 중심의 미래학문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우 한독심리운동학회장은 “심리운동과 인공지능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간 중심적 가치의 재구성을 의미한다”며 “AI는 심리운동의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개별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논의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독심리운동학회는 심리운동발상지인 독일과 연계해 국내 심리운동의 확산과 학문적 체계화를 위해 김운태 대외협력부총장 등의 주도로 2014년 10월 창립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대 중심 고등교육 발전·글로벌 비전 모색

전북대서 ‘전국 국립대 전·현 총장협의회’ 개최

전국 국립대학교 전·현직 총장들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 모여 국립대학의 미래 비전과 공공의 역할을 논의했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6~7일 ‘2025 전국 국립대학교 전·현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총장의 초청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조성화 전 군산대 총장(협의회장), 이수성 前 서울대 총장(前 국무총리), 장혁표 前 부산대 총장(現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신극범 前 한국교원대 총장 등 전국 국립대 전·현직 총장 15명이 참석했다.

전국 국립대학교 전·현직 총장협의회는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등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1999년 충남대학교에서 첫 회의



를 연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제43차 회의는 전북대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대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비롯해, 정부 고등교육 정책 제언, 글로벌 대학 추진전략, 국립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북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 학30 사업의 비전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지역과 세계

를 잇는 ‘플래그십 대학(Flagship University)’으로서 지역 인재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장혁표 前 부산대 총장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관계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인성교육과 예방 중심의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 중앙도서관과 박물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와 덕진현 간담회가 진행돼 대학 간 교류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오봉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립대학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며 “이번 협의회가 국립대 혁신과 연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중국인 유학생 안전교육·문화예술축제

유학생 범죄예방 강연·권익보호 간담회 등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유두현)는 지난 8일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에서 중국인 유학생 안전교육 및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전북지역 5개 대학 3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참석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불법 환전 방지 △국내 체류 중 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등의 강연이 이뤄졌다.

이어진 2부 ‘권익보호 간담회’에서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을 비롯해 도내 대학 관계자와 지역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중국인협회,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지역중국학생학자연합회 등이 참여해 △불법 환전 금지 및 자금 관리 강화 △심리 건강 및 문화 적응 지원 △법률·의료·주거 지원 체계 구축 △지역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3부 문화예술 축제에서는 전북 5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이 준비한 노래, 전통무용,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다.

전주대학교 중국인 유학생회 왕시문 회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전북지역 학생학자연합회가 협력해 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



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윤달이스포츠, 유디전주효자치과, 전북중국인협회 등 지역사회의 기관과 단체들이 후원하며 공동체적 의미를 더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주 육아종합

지원센터 위탁 운영 재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산학협력단이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위탁 운영 기관으로 재선정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주시 영유아·부모·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육·양육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공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전주비전대는 보육, 아동, 사회복지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밀착형 교육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왔다.

한편,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분점을 중심으로 장남관 대여실·놀이체험실·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